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6월 11일 (제902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 컬럼

건강이 최고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어느 CEO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고 했다. 많은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이 강연을 들으러 몰려들었다. 성공담화를 듣기 위해서였다. 박수를 받으며 등단한 강사는 바로 준비된 칠판에 ‘1,000억’이라고 썼다. 그리고 말했다. “저의 재산이 이정도 될 겁니다. 부럽지요?” 그러자 다들 ‘네~’ 하며 부러움에 가득한 함성을 질러댔다.

강연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富)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00억에 0이 세 개 있습니다. 맨 마지막 ‘0’은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0’은 관리입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최대의 적이며,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0’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성공의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가족이 최대의 힘이지요. 그럼 이제 ‘1’이 남았습니다. 이 ‘1’이 없으면 뒤에 있는 ‘000’은 그저 ‘0’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모르겠다는 얼굴들이다. 강사는 말했다. “이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가족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강사는 단에 선 지 채 5분도 안 되어 퇴장했다.

그렇다. 1,000억에서 ‘1’이 없으면 ‘0’이 되듯,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0’의 인생이 된다. 성경도 말씀하신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8:36).

건강을 잃은 주의 종들이 지금 기도원에서 회복중이다. 나는 그들에게 “네 건강을 찾아야 목회도, 가족도 있는 것이니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네 건강만 챙겨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나 역시 건강충전에 힘쓰고 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라. 너무 시든 나무에는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지금 건강을 챙겨라.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몇몇 젊은 목회자들에게 시도했던 목사님의 메시지(아침의 만나) 발송이 2016년 6월 2일, ‘플러스친구’라는 단체 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첫 발송을 시작한 이래 지난 2017년 6월 4일까지 총 367일 동안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성도들의 핸드폰으로 전송되었다. 1년 여 동안 가입회원은 7,5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잠들었던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수많은 간증들을 접하고 있다.

매일 아침에 전달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나 매일 받는

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페이스북 등, 각종 SNS망을 통해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연일 메시지 번역에 수고하는 우리 통역관들께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를 전한다. 목사님과 일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런 각오와 자세를 요한다. 목사님 말씀처럼 시작은 누구나 같이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같이 하기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과 신앙이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목사님은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여

의 정신, 오직 나를 버리고 예수로 가득한 삶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길임을 본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10:11~15).

이번 벨라루스(Belarus) 집회를 떠나시며

三

플러스 친구

99+



붕우 이초석

친구중 친구

지난 36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성도들을 찾아간 목사님의 메시지(아침의 만나)

목사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삶의 모토로 삼는다는 분도 있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시 다른 분들에게 전파하거나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복음전파에 동참하는 분들도 많다는 소식이다.

또한 잠실학생체육관 시절,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은혜를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지방이나 해외로 떠나있던 분들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과 형편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반갑게 찾아와 목사님을 추억하며 변함없는 목사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매일 수많은 댓글이 폭주하는 관계로 일일이 답해드리지 못하는 실정을 이 지면을 통해 사과드리며 아울러 성도님들의 양해를 구한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매일 영어, 일어, 중국

보내오셨다. 모든 일에 대충을 모르시는 분인지라 400자에 제한된 글을 매일 작성하시느라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은 정말 놀라움이었고 안쓰러움이기도 했다. 또한 매일 댓글로 올라오는 성도들의 상담에 일일이 댓글을 달아 답해주거나 직접 전화로 위로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목회의 진면목을 배웠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의 자세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진실로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을 위해 한 목숨 던지겠다는 정신이 없이는 절대 나설 일이 아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목자의 정신, 사자나 늑대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걸었던 목동 다윗의 정신, 양을 위해 죽는다는 예수님

집회기간동안 아침의 만나를 잠시 쉬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만큼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 작성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매일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아보던 분들이 아침마다 많이 허전하실 줄로 안다. 그만큼 이번 집회에 집중하시려는 목사님의 자세와 각오를 이해하시고 기도로 적극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목사님은 반드시 이번 벨라루스 전쟁에 승리의 회신을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실 것이다. 다시 뵙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그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벨라루스 집회

6월 5(월) ~ 15일(목)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8:16~20)

성령을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란 것이다

기독교인이 1,2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픈 가슴만 부여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전도의 불꽃불을 들어야 합니다. 이대로 쫓대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지요? 문을 안 열어 줍니까? 마음의 문도 안 열어줘서 힘들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도 못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시절이나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유독 지금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보다 성령 충만을 잃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마귀의 품에서 빼앗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힘든 것이지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 가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우리의 지식이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시켰겠지요. 언변으로 한다면 달변가나 언변가에게 부탁하셨겠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전도는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4~5).

그렇다면 왜 성령을 받아야 전도가 가능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차선은 없다 최선을 다하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신 예수님도 그냥 전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후에야 하셨습니다(막1:9~10).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 “하나님이 나 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10:38).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고 고백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그도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스승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순교하기까지 복음전파에 매진했습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한 것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8:5~6).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

하시며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24:49)고 하신 것이고,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전혀 기도도 힘썼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고(행2:1~4), 성령 받은 그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받은 권세와 능력은 암행어사 마패 같은 것이요, 전쟁의 신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암행어사 마패 앞에 악정을 일삼던 관원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북한이 세계를 향해 큰소리를 치는 이유가 강력한 핵을 가졌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으로 받은 권세와 능력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

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고로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요4:48).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데 안 믿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국내나 해외 집회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목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벨라루스 집회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을 확신합니다. 베드로

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 귀신을

는 돈 버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구원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영적전쟁에 나가는 자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무기 없이 나가서 싸우면 백전백패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복음을 전파하라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 알다시피 기도해야 합니다. 핸드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기도도 성령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행하신 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도할 처소를 찾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제가 집회에 나가면 하루 7시간씩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천원과 만원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1시간 기도와 2시간, 3시간 기도는 그 능력이 다릅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방어 정도는 할 겁니다. 그러나 하루 4 시간 기도하는 사람, 7시간 기도하는 사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등,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 지도 성령이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쫓고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을 확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행14:3). 사도행전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가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능력, 곧 각양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고전12:8~11). 이 은사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손에 성경과 책을 잡아라

미국의 시카고 대학은 1892년에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다. 이 대학은 1929년까지 3류 지방대학으로 머물러 있었다. 1929년 부임한 로버트 허친스 총장은 학생들에게 고전을 읽혀야겠다는 생각으로 ‘The Great Books Program’을 세워 고전문학, 철학, 역사서 중심으로 144권의 책을 골라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때까지 100권의 책을 선택해서 완전히 익힌 자에게 졸업장을 주었다.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공부를 멀리하던 학생들이 공부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고, 문재들이 천재들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결과는 어마어마했다.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낸 학교가 되었다. 현재 8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학교가 되었다. ‘The Great Books Program’ 때문이다. 즉 독서 때문이다. 독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독서는 사람의 시야를 열어준다.

김병완이란 사람은 삼성전자 연구실에 10년 근무했던 사람이다. ‘평생 직장인으로 다니다가 떨어져 가을비에 뒹구는 낙엽 같은 신세가 되지 말자’ 하고 과감히 퇴직하여 서울에서 아무 지인이 없는 부산으로 이사한 후 3년간 도서관에 틀어박혔다. 그리고 3년 만에 9,000권의 책을 읽었다. 그가 말하길, 책을 정해진 시간에 많이 읽었더니 임계점을 넘어서 사고의 영역이 활짝 열리더라. 지금은 저술가로, 기고가로, 강연가로 눈코 뜰 새 없

이 바쁘게 살아간다. 본인이 몸담고 있던 회사에서 이젠 강사로 모셔간단다. 독서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해서 3개월 만에 너무 산만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쫓겨났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집에서 교육시키면서 10대 때 무려 2만권의 책을 보게 했단다. 이 일이 그를 위대한 발명가로 만든 원동력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빌게이츠는 10세부터 매년 300권의 책을 지금까지 읽고 있단다. 그는 “오늘 나를 만든 것은 나의 고향 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다.”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성경이란 책은 시편 19편에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16절에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다.

책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휴대폰과 TV 리모컨을 손에서 내려놓고 성경과 책을 잡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시대 목사



추천도서

주께하듯하라
채의승 저

:: To Be Succeeded ::

목마른 사슴의 심령을 주소서

문학박사이자 교수, 초대 문화부장관을 지낸 이어령 박사는 부와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누리던 그 때, 뭘지 모를 배고픔과 갈증을 느꼈다고 한다. 영혼의 광야를 지나 70이 넘은 노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오늘도 그 우물을 판다고 고백했다.

전 세계를 재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34살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놓아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함을 알게 하라.”는 한 마디 유언만을 남겼고, 많은 재물과 향락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왕 역시 세상 것으로는 보고 들어도 족함이 없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남겼다. 요컨대 눈에 보이는 부와 힘, 명성이 근원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없음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반열에 합류했고 삶의 질은 높아졌다. 그러나 먹어도, 누려도 만족함이 없는 이 세대에 주님은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상

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기에 겸손히 나아오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 빗세바를 벌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온 밤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고, 다섯 남자를 만났지만 맘 둘 곳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영혼의 생수가 터지는 축복을 누렸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혈루 근원이 마르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목마른 심령으로 주를 찾을 때 우리 또한 생수가 터지듯 임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되찾을 수 있다. 적당히 편안한 삶과 신앙에 안주하는 것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애타게 주를 찾는 그 심령이 복되다. 이것이 크고 작은 모든 성공의 시발점이자, 초석(礎石)이 됨을 알아 오늘도 간절히 주님을 불러보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1:2).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끝이 아름다운 신앙

32세의 젊은 청년이 술에 취해 횡감에 제초제를 마셨다. 속이 타들어 가는 고통 가운데 어미를 통해 급히 목사를 찾는다. 깜짝 놀라 달려간 목사에게 청년은 일그러진 얼굴로 울부짖는다. “목사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목사는 청년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랬다. 잠시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청년은 20분 만에 사망했다. 제주 사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청년의 장례를 치르며 생각해본다. 인생의 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전7:8). 신앙인의 삶은 어디에서 끝나는가 보다, 어떻게 끝내느냐가 중요함을 잊지 말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며 하나님만 섬길 것을 유언한다(수24:14~15).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요19:30). 스테반 집사는 복음 증거 후에 대적하는 무리들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믿음의 유언을 한다(행7:60). 한편 강도는 어떠한가? 평생 강도였던 그였지만 죽음의 끝에 예수를 불렀더니 낙원에 갔다고 기록하지 않던가(눅23:42)! 반면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던 자들도 있다. 사울왕, 데마, 가룟 유다, 니골라, 야나니아와 삽비라...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처음은 누구나 같이 할 수 있지만 마지막을 같이 하는 것은 어렵다고. 오직 결과만이 과정을 대변해준다고.

신앙인은 끝을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끝을 보고 최선을 다한다면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의 결과는 창대할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 귀를 기울이세요 ::

71세, 크리에이터

요즘 미디어의 화두는 크리에이터(Creator)이다. 과거 지상파 3사로 시작하던 채널은 케이블TV, IP TV의 800여 개 채널을 지나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수백, 수천만 가지의 채널이 형성되었다. 이런 크리에이터의 세계는 B급 영상물 제작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방송, 광고 시장까지 잠식하였다.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란 무엇인가? 크리에이터를 직역하면 ‘창조자’라는 뜻이지만, 요즘은 ‘1인 창작자’란 의미다. 즉, 인터넷을 많이 하는 10대, 20대에 게 ‘대도서관을 아느냐?’ 라고 하면 바로 알아차릴 것이다. 이런 1인 창작자들은 자신이 출연한 동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그것을 업로드하여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일까지 한다. 그들은 게임, 먹방, 쿡방, 영어 강의, 뷰티, 개그 등 일상의 소소한 소재를 가공해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 많은 크리에이터들의 연봉은 대기업 임원급이며 연예인 못지않은 팬덤을 형성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젊은 크리에이터의 세계에 야심차게 등장한 71세의 할머니가 있다. 이 할머니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직

접 촬영을 하고 연기, 대화, 여행, 노래 등의 콘텐츠를 생산한다. ‘박막례 할머니의 호주여행’, ‘박막례 할머니의 게모임 페이크업’, ‘박막례 할머니의 쌀국수 경험기’, 제목만 들어도 젊은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할머니에게는 그야말로 모험이 가득한 이야기가 예상된다. 이 할머니 크리에이터를 SNS 스타로 만든 건 손녀딸이었다. 평생 식당 일만 했던 할머니에게 어느 날, 치매를 조심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 떨어지자 손녀는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70 평생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에 할머니는 신바람이 났고,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연령층은 박막례 할머니를 자신의 할머니인양 열광하고 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도 일흔이 넘는 나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배움을 시작한 분들이 있기에 더욱더 이 박막례 할머니의 도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앞서 가는 방법의 비밀은 시작하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무너진 성전들

최근 한 동역자에게 예전에 열심으로 주를 섬기던 한 성도가 세상으로 나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몇몇 지체들과 함께 작정기도를 시작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누가 나를 위해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각각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으나 때로는 육체적 고통으로, 때로는 무거운 삶의 무게로, 때로는 세상의 기쁨을 좇아 하나님을 떠나 무너지고 부서진 성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절절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함께 품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길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동원명령이기도 했다. 청년실업률 10%인 그야말로 ‘일자리 수난시대’에 가족 챙기고 일자리 지키느라 팍팍하고 정신없어 여유가 없다고, 내 생활만 유지하기도 바쁜 시대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학개서의 기록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라며 자신들의 사업과 가정의 풍성함만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강력히 꾸짖으시며 그런 자들은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지갑에 넣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그리고 이제라도 산에 가서 나무라도 베어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과 함께 그렇게 재건되는 성전이 예전에 화려한 모습에 비해 초라해보일까 염려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격려하시며 과부의 두렵든 같은 그 섬김들을 넘치도록 축복하신다(학1,2).

또한, 성경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무리들을 좌우로 나누시는 기준이 의외다. 세상에서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했는지, 높은 명예와 값진 부를 쌓았는지에 따른 분류가 아닌 굶주린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 무너져 버린 성전과 같은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일

으키기 위해 사랑으로 섬긴 자들은 영생에, 외면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 간다는 것이다(마25:31~46).

탕자의 비유가 있다.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가져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과 그런 그를 환영하는 아버지를 큰 아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큰 아들이 정말 큰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 집을 떠나려는 동생을 설득하거나, 집을 떠나 세상 즐거움에 빠진 동생을 수소문했거나, 돼지우리에서 쥐엄 열매를 먹으며 고통에 빠진 동생을 먼저 돌아보았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 말이다.

힘들고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 주변에 주의 일을, 무너진 성전과 같은 이들을, 탕자와 같은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섬김조차 기뻐하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도 하지만 죽은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영혼이 어렵잖이나마 예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사이며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환희와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마감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의 임종을 지

켜보고 있는데 무디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보라, 영광이로다! 이제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죽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디의 담대함의 비결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하사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언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교단소식 ::

예수, 열방의 소망



지난 6월 3일 토요일, 동작문화센터 대강당에서는 서울교육부서 연합찬양제가 있었다. 이번 찬양제는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서울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연합하여 준비하였다. 이 찬양제를 함께 준비한 신혁주 전도사는 교육부서를 대표하여 이 찬양제의 취지에 관해 “세계정세의 혼란과 교회의 타락,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 번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심을 알리고 싶었다. 또, 그리스도의 몸 된 교

50여 명의 악기, 보컬, 워십 멤버들은 무더운 초여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완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 힘썼다. 그렇기 때문일까? 찬양제의 열기는 중동의 열사만큼 뜨거웠고 성령님의 임재는 강력하였다. 찬양제에 참여했던 한 젊은이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내가 오늘 보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500여 명의 다윗들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고(시47:1),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

축하며(시134:2),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고(시149:3), 호흡이 있는 자마다(시150:6) 피를 쏟듯이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렸다.

안동식 목사는 “말도 안 되는 숫자로 여러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NEW 인생스케치’를 위하여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얹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비전으로 가득 채워야 함을 명심하시고, 지금 이 시간 찬양제를 통하여 새로운 은사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설교했다.

이번 찬양제는 찬양제를 준비한 악기, 보컬, 워십 멤버뿐만 아니라 이 찬양제에 참여한 다윗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소망이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천국잔치였다.

기자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미스터 리’

‘미스터 리!’

노르웨이 상점에 가서 이렇게 외치면 라면을 줍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미스터 리’가 라면의 고유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리’는 노르웨이 라면시장 점유율 95%를 기록하고 있는 라면 브랜드입니다. ‘미스터 리’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노르웨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입니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한국인 이철호 씨(78세)입니다. 포장지의 캐릭터처럼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을 지닌 분입니다. 그 분의 삶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다 잃고 고아가 된 그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운 좋게도 치료를 받기 위해 노르웨이로 가게 됩니다. 노르웨이 최초 한국인 이민자인 셈입니다. 그의 상태는 심각해서 무려 43여 차례의 수술을 받고서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 먹이용 빵으로 끼니를 때울 만큼 가난했습니다. 온갖 잡일을 하면서 연명하던 그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라면을 노르웨이에서 팔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노르웨이 현지인들의 입맛에 맵고 얼큰한 한국의 라면이 맛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

다. 어쩌면 좌절도 그에게는 사치였을 겁니다. 그는 맵고 얼큰한 맛을 빼고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개발하려고 수없는 실패를 거듭하며 노력했고, 마침내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때, 노르웨이 사람들은 ‘미스터 리’의 조국의 대통령이라고 소개할 정도였으니 그의 인기와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겁니다.

노르웨이 라면왕 이철호 씨, 그는 말합니다. “실패할 수는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실패하지 않은 성공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한 성공자도 없습니다.

